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김원재목사

샤마임찬양대

설교자

다같이

인도자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자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3:4-12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가 함께 계시니(찬 325)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부터 영어예배와 아동부예배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지하 소예배실 / 아동부: 1층 친교실
3.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4. 다니엘 금식기도가 3월 28일(주일) 부터 4월 3일(토) 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한울림교회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일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되어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6. 2021년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지난 주일에 받지 못하신 분은 마스크 가드를 1인당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한국 찬송가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찬양곡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원래 있던 곡조에 가사를 입혀 부르고 있는 곡들도 많습니다. 한국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종류는 미국 복음성가입니다. 혹자들은 아직도 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를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일찬송가를 기준으로 미국 복음성가는 무려 269곡이나 포함되어 있고, 고전 찬송곡은 100곡도 되지 않습니다.

좀더 살펴보면, “피난처 있으니(70장)”는 영국 국가이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210장)”는 독일 국가입니다. 이 외에도 영국 민요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493장)”를 비롯해서 여러 곡이 있고, 미국 민요, 프랑스 민요, 독일 민요, 네덜란드 민요, 스페인 민요, 아일랜드 민요 등 각 국의 민요에서 곡조를 가져온 찬송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찬송가가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은 곧 미국 찬송가의 경향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990년 발간된 미국연합장로교회 찬송가 346장의 제목은 “Christ, You Are the Fullness”입니다. 그런데 이 곡조는 다름 아닌 한국 민요곡입니다. 찬송가 제목 밑에 영어로 ARIRANG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가의 곡조로 거론될 정도로 한국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리랑이 미국과 캐나다의 찬송가 곡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에 골로새서 1장 15-18절 말씀을 시로 지어 찬송가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부를 첫번 찬양곡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그것을 번역한 곡입니다. 지난 주간 2월 12일이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 주일을 준비하며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찬양곡은 코로나 상황으로 무너지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선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은 이 선곡 기준에 가사가 부합되지는 않지만, 설날을 맞아 부르고 싶어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PCUSA에서 우리 민요가 찬송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찬송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